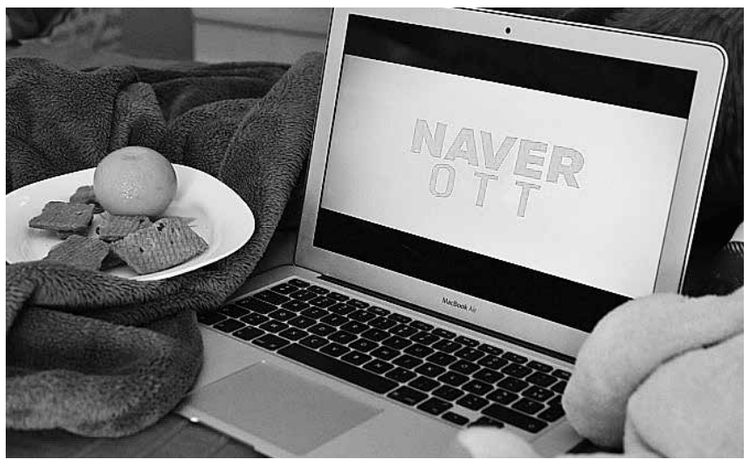
美 상장 앞둔 '네이버웹툰', 글로벌 OTT시장도 노린다

자회사 스튜디오N 통해
영화·드라마·애니 등 제작
34개 작품 영상화 진행중

작년 넷플릭스 국내작 절반
네이버웹툰 IP 원작이 차지

이미 4개 채널 운영 자신감
업계 "시장 진출 시간문제"



네이버웹툰의 'OTT' 시장 진입을 두고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네이버 OTT 상상도. 사진=편슬기 기자

네이버웹툰이 美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OTT' 시장 진입을 두고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네이버웹툰은 산하의 스튜디오N을 통해 웹툰 IP를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다. 시리즈온을 통해 OT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춰져 있어 '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네이버웹툰의 미국 상장 준비에 힘입어 네이버 OTT 도전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네이버웹툰의 유명 IP들은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타 OTT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들과 활발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유미의 세포들', '스위트 홈', '비질란테', '이재, 곧 죽습니다' 등 스튜디오N이 제작한 웹툰 IP 원작 드라마만 24개에 달한다. 영화는 7개, 애니메이션은 3개 작품으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작품만 해도 총 34개가 영상화를 마쳤거나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공개된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의 절반이 네이버웹툰 IP 원작일 만큼 의존도가 높다.

지금은 타 스튜디오와의 공동 제작 등 협업을 통해 콘텐츠 제작에만 힘을 쏟고 있지만 네이버웹툰 IP 콘텐츠들을 자사의 시리즈온과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독점 서비스한다면 네이버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짐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2018년부터 웹툰 IP의 영상화에 나선 스튜디오N은 매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834억원, 영업이익 6억원을 올려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드라마 및 영화의 성공으로 원작인 웹툰도 다시 인기를 끌며 수익 증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넷플릭스 '더 에이트 쇼'의 흥행이다. 영상화를 통해 시청자들의 인기를 얻자 원작 웹툰인 배민수 작가의 '머니게임'과 '파이게임'도 다시금 독자들 사이에서 '역주행'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웹툰 IP 하나의 성공이 드라마, 영화, 굿즈, 게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네이버가 콘텐츠 제작과 더불어 유통의 주체가 된다면 발휘될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는 쿠팡과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로도 꼽히는 모습이다. 현재 쿠팡은 자사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 중인 '쿠팡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OTT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제공 중이다. 양사가 커머스 분야에서 경쟁 중인 현재, 네이버가 갖추지 못한 유일한 요소가 'OTT'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통해 시리즈온에서 제공하는 일부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용 제한 콘텐츠의 경우 별도 추가 구매가 필요하다.

네이버의 방송 플랫폼은 '네이버TV'와 영화·드라마 SVOD(스트리밍 비디오) 플랫폼 '시리즈온',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숏폼 플랫폼 '클립'까지 총 4개의 채널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네이버는 시리즈온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네이버웹툰 IP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독점' 제공한다면 '시리즈온'을 거칠 확률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웹툰의 IP를 활용한 OTT 시장 진출이 이뤄지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다수의 플랫폼을 통해 자사 웹툰 IP의 경쟁력을 충분히 확인한바, OTT 시장 진출은 그저 '시간'의 문제일 것"이라고 전했다.

편슬기 기자 pyeonhaeyo@

"日 차업계 부정 인증 차량, 대부분 구 모델"

국내 판매 차량 문제없을듯
안전 기준 신뢰도엔 치명타

"인증기관 재테스트 진행
국내선 수치 조작 불가능"

토요타의 자회사 히노자동차와 다이하츠의 품질 부정 문제로 불거진 논란이 일본 전체 브랜드로 확산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미칠 파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안전의 대명사인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품질 부정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를 비롯해 수입차 업계의 안전도 테스트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국교성)은 지난 3일 토요타 등 5개 기업의 38개 차종 인증 획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성은 현재까지 △토요타 7개 차종 △마쓰다 5개 차종 △야마하 3개 차종 △혼다 22개 차종 △스즈키 1개 차종 인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다만, 국내에 진출한 일본차 업체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모델이 대부분 구형이거나 단종된 만큼 판매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완성차 안전기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우려를 걱정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들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테스트 결과를 인증기관에 전달하지만 국내에서는 인증기관의 재확인 테스트가 진행된다. 이에 수치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완성차 업체의 자체 테스트 외에도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추가로 안전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일본기업의 안전도 테스트와 관련해 국내 업계에서는 의문이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타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국내의 경우 재인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수치상의 조작은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안전 인증 문제가 된 모델 중 국내에 시판중인 차량은 렉서스의 RX모델 뿐 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타의 크라운도 지난해부터 국내에 판매중이지만 인증 부정문제와 연관이 없는 모델이다.



도요다 아키오 토요타자동차 회장이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토요타 품질 인증 부정 취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중인 차량 중에 인증 조작에 해당하는 차량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우 기자 ghost427@

호암미술관, 불교미술 진수 세계에 알려

첫 고미술 기획전 개최
세계적 걸작 92점 전시
관람객 6만명 돌파 인기
전 세계 전문가들 호평

"민족문화의 유산을 더 이상 해외에 유출, 산일시켜서는 안되며 영구히 민족의 유산으로 보존해야한다."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문화재 보존 의지가 엿보이는 말이다. 이 창업회장의 이같은 의지는 호암미술관에서 다시 한번 꽃피웠다.

호암미술관은 첫 고미술 기획전을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의 불교미술을 '여성'이라는 키워드로 전시된 것은 세계 최초다.

호암미술관은 동아시아 불교미술을 조망하는 호암미술관의 대규모 기획전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하 연꽃처럼)이 일반 관객은 물론 전 세계 전문가들의 관심과 호평 속 관람객 6만명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연꽃처럼'은 호암미술관이 5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기획한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호암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 전세계 27개 컬렉션에서 걸작 92건을 준비했다. 한국에 처음 온 작품만 47건에 달할 정도다.

이번 전시에는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이재용 회장 3대에 걸친 민족문화 유산을 지키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궁중숭불도 △자수 아미타여래도 등도 함께 전시된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 창업회장은 개인적으로 모아 왔던 문화재 1167점을 1978년 삼성문화재단에 기증했고 2021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 선대회장이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평생 모은 개인 소장품 중 2만3000여점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한 바 있다.

선대회장의 기증품이 창업회장이 만든 미술관에 다시 돌아와 세계적인 명품들과 나란히 '세계 최초의 기획'에 함께 전시됐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특히 눈여겨 봐야할 작품은 해외 개인 소장가로부터 대여해 온 '백제의 미소' 금동 관음보살 입상이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 일반인에 최초로 공개됐다. 이외에도 고려시대 국보급 작품 '나전 국당초문 경함'은 전 세계에 단 6점만이 남아있는 진귀한 명품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1-7 △아미타여래삼존도 △아미타여래도 △석가여래설법도 등 4점도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에 최초로 공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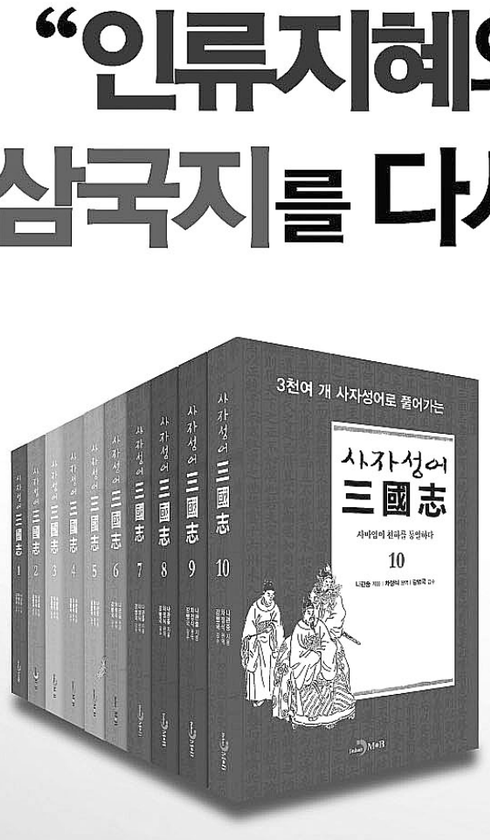
국내외 미술전문가들은 이번 전시회를 "세계 유수의 불교미술 명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생에 한 번 밖에 없을 특별한 기획전"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도 "한곳에서 보기 힘든 불교미술의 명품들"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jangys@


호암미술관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기획전에 '백제의 미소' 입상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삼성

"인류지혜의 보고,
삼국지를 다시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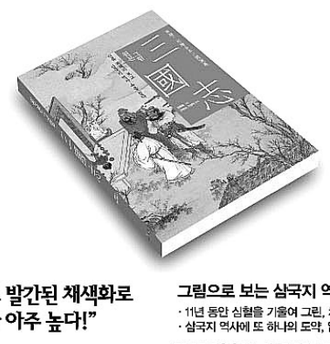


사자성어 三國志

삼국지 시장판도 바꿀 새 버전 뜰지 주목
사자성어로 풀어, 12년 동안 몰입한 역작

이문열, 황석영 등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즐비한 삼국지번역 시장에 사자성어로 풀어가는 색다른 삼국지가 등장. 출판업계를 흔들어 놓을지 주목된다. 낯선 작가인 차정식(61)씨가 들고 나온 '사자성어 삼국지'는 일반 삼국지와 달리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색다르다. 번역을 위해 중국에 맞닿아있는 키르기스스탄으로 건너가 12년 동안 삼국지 원역에 몰두했기에 무게감이 있고 내용도 탄탄하다.

저자 나관중 / 역자 차정식, 김수 강병국 / 각권 15,000



"국내 최초로 발간된 채색화로 소장 가치가 아주 높다!"

원본 그림 三國志

그림으로 보는 삼국지 역사 속 산책
· 1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그린, 채색화 240장면
· 삼국지 역사에 또 하나의 모약, 압축묘사 돋보여

명경으로 엮은 책이나, 만화로 읽던 삼국지와 달리 당시의 생생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원본그림 삼국지'에서 독자들의 시선을 끈다. 채색화의 가장 금힘줄(金值中) 위기가 11년 동안 그린 기념비적인 역작으로 그림에 맞는 압축된 글이 마치 몽운시대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한다.

강병국, 차정식 평역 / 금협증 그림 / 정가 45,000원



삼국지에 등장하는 영웅과 당시 배경, 한 눈에 명장면 감상하세요!

넛지 삼국지

핵심에 접근한 초간편 삼국지
인물 30편(90명), 배경 120편

'넛지 삼국지'는 삼국지를 읽지 않았거나, 읽은 독자들의 열구리를 룩 씌려줌으로써 삼국지를 읽게 하고, 다시 명장면을 회상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 권으로 슬쩍 삼국지를 읽고 싶어 한다면 '넛지 삼국지'는 인생맛좀이 될 것이다. 시대를 초월해 지혜의 보고로 잠읽히는 인문도서, 최지되는 삼국지로 단숨에 읽을 수 있는 '넛지 삼국지'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강병국 지음 / 정가 8,000원



자기경영, 기업경영 군사경영의 필독서!

전략 삼국지

전술도, 사자성어, 인물묘사 모은 기서(奇書)이자 병서(兵書) 서른일곱번의 전투, 생동감 있고 명쾌하게 분석한 전쟁고전

중국 삼국시대에 펼쳐진 서른일곱번의 전투를 전술도와 그에 맞는 사자성어, 등장인물을 조화롭게 엮었다. 적벽대전, 관도대전, 박망성전투, 와구관전투 등 위(魏), 촉(蜀), 오(吳)가 펼친 주요전투를 상세하게 그려낸은 전술도는 현장감을 더해 준다. 어떤 장수와 군사가 어디로 와서 어디서 집전을 벌였으며, 어떻게 전개하고 펼쳐졌는지를 도면으로 상세하게 그려 전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차정식, 강병국 공저 / 308쪽 / 정가 20,000원



창의적인 삼국지 컬러링북 시리즈

삼국지 컬러링북

인물 30편, 배경 120편
삼국지를 그리는 시간

19세년 상해(上海) 금장서국(錦章書局)이 발행한 중상전도삼국연의(增像全圖三國演義)에 실린 그림을 바탕으로 1권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주요인물 90명을 3명씩 묶어 30컷으로 만들었고, 2권부터 5권까지는 삼국지를 대표하는 120회 분의 그림을 30회분 씩 나눠 4컷으로 엮은 것이다. 따라서 색칠하기를 양성하면 삼국지 속 인물과 당시의 장면을 명확히 볼 수 있으며, 삼국지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알게 해준다.

강병국 지음 / 각권 8,000원

Jinhan M&B 진한엠앤비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14길 66, 205호 | TEL : 02-364-8491 | FAX : 02-319-3537 | www.jinhanbook.co.kr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예스24 절찬 판매중